

홈 > 뉴스 > 대학뉴스 > 대학일반 | 뉴스플러스

## POSTECH, 스마트 콘택트렌즈 투자유치

한세광 교수가 설립한 (주)화이바이오메드, 7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2018년 06월 08일 (금) 14:50:35

오혜민 기자 ✉ ohm@dhnews.co.kr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POSTECH(포항공대, 총장 김도연)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가 창업한 (주)화이바이오메드가 국내 최대 규모 콘택트렌즈 회사인 (주)인터로조(대표이사 노시철)로부터 7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는 한세광 교수팀이 개발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당뇨 진단 시스템 기술이 있다. 각막과 눈꺼풀 안쪽에 있는 혈관에서 착안한 이 기술은 혈관 속 당 농도를 근적외선 빛으로 분석, 진단을 내리는 당뇨 광 진단기술이다.



한세광 교수

(주)화이바이오메드는 한세광 교수가 LG화학 및 호프먼-라로슈(Hoffman-La Roche)에서 수행했던 연구경험과 포스텍에서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의료용 나노소재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진성형외과(연간 매출액 800억 원)와 공동으로 2014년 창업한 회사다.

창업 직후에는 포스코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 벤처기업으로, 작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됐다. 현재 질병 진단 및 치료용 스마트 콘택트렌즈 중심 의료기기 사업과 히알루론산에 대한 연구경험을 기반으로 히알루론산 나노의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인터로조는 올해 매출액 938억 원, 영업이익 283억 원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규모 콘택트렌즈 제조 기업이다. 소프트렌즈뿐 아니라 미용 컬러렌즈, 치료용 렌즈 등 다양한 기능성 렌즈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로조 관계자는 “한세광 교수가 보유한 스마트 콘택트렌즈 관련 원천 특허기술을 이전, 사업화하기 위해 (주)화이바이오메드에 대한 10% 지분투자 및 대규모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스마트 콘택트렌즈가 당뇨병 및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 및 치료하는 플랫폼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